

교육현장 일제잔재 뿌리뽑는다

전북교육청,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 맞아 일제잔재 청산 공모전 추진

전북교육청이 일제잔재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1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을 맞아 교육현장과 행정분야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일제식 용어를 정비하고, 일제에 의해 폐기되거나 오염된 아름다운 우리말을 복원한다는 취지

다. 공모 분야는 일제 강점기 도입된 일본식 교육과 행정 용어, 일제 강점기 도입된 일본식 조직 문화 개선, 일제 강점기 제국주의적 교육제도 등이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순화 대상 용어와 개선이 필요한 제도 등을 수정 이유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로 도교육청 홈페이지(알림마당→전북교육

소식→공모전)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상용어보다는 행정용어나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제도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다만 '가라'(가짜), '대절'(전세), '견본'(본보기), '고수부지'(문치), '백묵'(분필) 등과 같이 이미 일반화돼 알려진 용어는 제외된다. 응모제의 대상 용어는 신청접수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5월말 심사를 거쳐 6월

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전북중등음악교육연구회와 함께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교가 정비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가를 수집·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총 25개교에서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교가 개선 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내달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혜택... "본인부담 1만~3만원"

오는 4월부터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가 적용되면서 근골격계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최고 20만원에 달했던 비용이 1만~3만원대로 낮춰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이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해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근골격계 질환자 등 국민들 요구가 컸지만 비급여인 탓에 한방병원·한의원에서 가격이 천차만 별이었다.

지난해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대 7만원인 단순추나는 물리요법으로 별도 비용

을 받지 않는가 하면, 복잡 8100~20만원, 특수 1만5000~20만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단순, 복잡, 특수(탈구) 추나요법 시술을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은 50%(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30~40%)로 설정하는 게 골자다.

복잡추나 중 디스크·협착증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만 8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액은 1만~3만원대로 표준화된다. 한방병원 외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액은 단순 1만1000원, 복잡 1만8000원, 특수(탈구) 추나 2만8900원, 디스크·협착증 외 복잡 3만100원 등이다.

한의원은 1만700~2만8900원 정도다.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00~3만원 가량 부담하게 된다.

다만 환자 1명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한 의사 1인당 하루 급여 청구건수도 18회로 제한된다. /뉴스시

실무사례 중심 교육으로 역량강화·업무능력 제고

도교육청, 재산업무담당자 연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간 재산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캠프인재개발원에 위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재산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제도 및 법령해설을 비롯해 무단점유 관리 및 실태조사 실무, 재산업무 관련 질의회신 사례 분석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국·공유재산관리 전문가인 캠프의 실무자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상세히 소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실무사례의 공유를 통해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지식을 습득하여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여건 마련

도교육청, 운영 지침 개선

절차 간소화·안전조치 등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위해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침을 개선하고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26일 오후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지원단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변경 지침에 따른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단위학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현장체험학습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교원 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 현장체험학습 추진 자료 탑재 횟수를 총 4회에서 1회로 간소화 하고, 운전자 음주 감지는 철저히 실시하되 학교자체 실시로 완화, 미세먼지 관련 대책 수립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정령 준수 이행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현장체험학습 지원단을 구성하여 학교를 지원한다. /장은성 기자

150명 이상 대규모, 규모와 상관없이 국외 테마식 현장체험학습(수화여행)은 계획 수립단계부터 세부 추진절차, 안전, 정령 등 전반적인 컨설팅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적합형 체험학습 매뉴얼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단위학교 지원을 통해 학교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য়ে 될 것"이라며 "안전한 체험, 효과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출신 김성진 씨 국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에 임명

전주대학교는 모교 출신 김성진 씨(80학번)가 국립국악관현악단을 새롭게 이끌어갈 예술 감독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신임 예술감독은 전주대 음악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뉴욕시립컨트리아대학교에서 오케스트라 지휘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이후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단장, 청주시립국악단 예술감독, 2012 한국문화예술주간 추진단장, 서울시청소년국악단 단장 등을 역임하며 그 운영 능력과 지휘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전주대 겸임교수로도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써 왔다.

한편 김성진 신임 예술감독은 그 동안 오케스트라와 국악을 접목시켜 국악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악과 국악 모두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글로벌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어 앞으로의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장은성 기자

안 오케스트라와 국악을 접목시켜 국악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악과 국악 모두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글로벌 지휘자로 주목받고 있어 앞으로의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귀추가 주목된다. /장은성 기자

지속 성장 위한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 가져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LINC+사업단과 (사)벤처기업협회(KOVA) 전북지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2기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입학식을 26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2기를 맞이한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 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리더십 함양을 함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제1기 과정에서 총 45명의 수료생을 성공적으로 배출하였

고, 올해 제2기 과정은 지난해보다 프로그램 및 인원이 확대되어 운영된다. 제2기 과정은 총 5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기술 습득 및 경영 리더십 함양을 위한 전문 교육, 전략 워크숍, 선도기업 방문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유관기관 간 소통을 늘리고 실질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연구 및 교육도 병행된다.

이호인 총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은 지역의 경쟁력이다"라며, "중소벤처분야와 지역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무주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주간을 운영했다.

'달라서 행복한 학교, 함께라서 행복한 교실'

무주교육지원청 위센터, 찾아가는 상담체험 프로그램 실시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반정수) 위(Wee)센터는 관내 학생들의 신학기 적응과 원만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주간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특히 달라서 행복한 학교, 함께라서 행복한 교실'을 주제로 기획된 2019년 상반기 상담주간은 친구들의 다양한 모습과 성품을 인정하고, 자신과 타인의 장단점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5개 초등 학교에서 '찾아가는 상담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총 250명이 참여한 '찾아가는 상담체험 프로그램'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꿈배지 만들기 스티커 설문조사(친구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학교 폭력 OX 퀴즈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

가운데 흥미진진하고 유쾌하게 진행됐다. 아이들은 올해 자신의 목표를 향한 응원의 메시지나 사랑하는 가족, 친구, 아이돌 및 반려동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자신을 상징하는 꿈배지를 만들고 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뿌듯해했다.

또, 스티커 설문조사에서는 친절과 경청, 밝고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며, 이기적인 태도와 폭력적 행동을 삼가는 것이 또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최상의 비결로 추천됐다.

한편 무주교육지원청 위(Wee)센터는 아쉽게도 이번 상담체험 프로그램에 함께 하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체험 프로그램'을 2학기에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